

늪지의 육상화에 따른 버들류 (*Salix* spp.)의 군집동태

김철수, 오경환

경상대학교

경남 합천군의 황강변에 위치한 박실지에서 수생 및 습생 관속식물의 식물상 및 식생구조와 늪지의 육상화에 따른 버들류 (*Salix* spp.)의 군집구조 및 임상식생을 1990년부터 1997년까지 8개년간 조사하였다.

조사지역의 수생 및 습생 관속식물은 72과 182속 223종 36변종 2품종으로 총 261종류였으며, 수생식물을 생활형별로 분류하면 정수식물 27종류 · 부엽식물 4종류 · 부수식물 6종류 · 침수식물 8종류로 총 45종류이며, 습생식물은 216종류였다.

관목층의 중요치는 선버들 (*Salix nipponica*), 왕버들 (*Salix glandulosa*), 키버들 (*Salix purpurea* var. *japonica*) 등의 순이었고, 초본층에서는 마름 (*Trapa japonica*), 고마리 (*Persicaria thunbergii*), 달뿌리풀 (*Phragmites japonica*), 부들 (*Typha orientalis*), 줄 (*Zizania latifolia*), 붕어마름 (*Ceratophyllum demersum*) 등의 순이었다. 수생 관속식물의 생활형별 우점종은 정수식물이 달뿌리풀, 부엽식물이 가시연꽃 (*Euryale ferox*), 부수식물이 마름, 침수식물이 붕어마름 등이었다.

연안대에 분포하는 버들류는 10종이었고 수령은 2년~11년이었으며, 수심이 깊은 호소의 중심부로 갈수록 수령이 낮았다. 버들류의 밀도는 34/100m²~61/100m²로서 수령이 높은 지역일수록 밀도가 낮았으며, 임상에 분포하는 초본의 종수는 다양하였다.